

# 옛 도심의 감성 변신...영화의 거리 '낭만곡성' 뜬다

'청춘어람 사업' 3년만에 연말 완공  
영화 콘셉트 다양한 조형물 설치  
특색있는 청춘 공방 10곳도 조성  
기차마을 연계 관광명소 기대

영화 '곡성'을 촬영했던 곡성에서 이번엔 '낭만 곡성' 짝어볼까. 곡성을 내 옛도심이 영화를 콘셉트로 한 영화의거리로 새롭게 태어난다.

26일 곡성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인 '6070 낭만곡성 영화로 청춘어람' (이하 '청춘어람')이 3년 간의 공사 끝에 올해 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 사업은 '경관 정비'와 '청년창업'으로 이뤄졌다.

경관 정비는 영화를 콘셉트로 560m에 달하는 도로와 가로환경을 정비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청년 창업은 10개의 낭만공방과 청춘어람센터를 조성하는 것이다.

곡성군은 그동안 주민 설명회와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등 행정 절차를 진행했고, 10곳의 공방 창업자를 모집해 공방 조성을 마무리했다. 또 경관 조성을 위한 도로 및 가로환경을 정비하고 있다. 청년 커뮤니티 공간인 청춘어람센터는 지난 6월 최종 설계를 마치고 공사에 들어갔다.

곡성군은 청춘어람 사업이 마무리되면 10곳의 특색 있는 공방과 함께 곡성 옛 도심 일대가 새로운 활력으로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알록달록한 상가 외벽과 영화 관련 조형물, 추억을 느끼게 하는 감성적인 거리 경관, 공방마다 독특한 상품들은 관광객을 유혹하기에 손색이 없을 것이다.

낭만공방 창업주들은 지난 5월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협업을 통해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축제 기간에는 낭만주간 행사를 여는 등 일대를 '문화의 거



기차마을 인근 곡성 옛 도심이 낭만과 청춘의 거리로 변신한다. 영화의거리 조감도(왼쪽)와 스타게이트 조형물.



<곡성군 제공>

리'로 만들 계획이다.

협업은 청춘어람센터에서 이뤄진다. 1층은 공유 공방 및 팝업 스토어, 회의실 등으로 활용되고 2층은 청년 기획자들이 입주해 지역 청년들과 구도심 상권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곡성군은 이달까지 공방 10곳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공방 개장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공방 조성은 토란주 가공점 시항가를 비롯해 8곳이 완료돼 일부 운영 중이며, 2곳은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이다.

낭만공방 관계자는 "오랜 준비 끝에 출발점 앞까지 왔다"며 "좋은 상품을 즐겁게 만들어 조합 창업주들과 함께 거리 일대를 감성과 문화가 넘치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내일 재개관

발열검사·마스크 착용 등 방역 철저

고흥군은 코로나19로 임시 휴관한 분청문화박물관을 28일부터 재개관한다.

26일 고흥군에 따르면 재개관하는 시설은 분청문화박물관, 조종현·조장래·김조혜 가족문학관, 갑재민숙전시관이며 전시관람과 체험프로그램을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고흥군은 박물관 등 출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발열 검사, 마스크 필수 착용 등에 대해 검사할 예정이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다.

또 출입 대상 작성, 일회용 장갑 및 손 소독제 비치, 주 1회 시설 전체 소독, 1일 2회 이상 문손잡이, 핸드레일 등 시설물 소독을 실시하며 37.5도 이상 발열자와 호흡기 유증상자, 최근 2주 이내 해외 여행 이력이 있는 방문자는 출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람객들에게 보다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많은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하반기 9월에는 고흥 고인돌 특별기획전을 개최하고, 10월에는 분청문화주간을 맞아 학술대회, 문화체험행사, 공모전 시상, 초대작가 작품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와 새로운 교육체험프로그램을 준비해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 여수밤바다 낭만포차

### 운영자 모집 오늘 마감

여수시는 여수밤바다의 아이콘 '낭만포차'를 내실있게 운영할 제5기 운영자를 모집한다. 접수는 27일 여수문화홀에서 받는다.

신청 자격은 여수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직계가족을 포함해 1명만 가능하다.

모집 인원은 총 18명으로 일반시민, 청년층, 인근지역주민, 기타(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북한이탈주민)로 나뉘어 계층별로 선발한다.

여수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각 계층별 모집인원의 3배수인 54명을 선발하고, 2차 음식 품평회에서 최종 18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된 18명은 각종 친절교육 등을 이수한 뒤 오는 10월1일부터 내년 9월30일까지 1년간 낭만포차를 운영하게 된다.

지난 2016년부터 운영 중인 여수밤바다 낭만포



여수시가 여수밤바다의 아이콘 '낭만포차' 운영자를 모집한다.

<여수시 제공>

차는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관광브랜드로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탁월한 맛과 친절환 서비스로

해양관광 휴양도시 명성에 걸맞게 낭만포차를 잘 이끌어줄 운영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 보성사랑상품권 특별할인 연말까지 연장

보성군은 보성사랑상품권 특별할인(10%) 기간을 당초 이달말에서 오는 12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보성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의 상권 회복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 기간 개인당 월 100만원 한도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고, 가까운 농협은행이나 지역 농·축협에서 신분증 지참 후 구매할 수 있다.

보성군은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정부 긴급재

난지원금, 전남형 긴급생활비,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등과 특별할인분을 포함해 총 230억여원의 보성사랑상품권을 판매·지급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연말까지 70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추가해 총 300억원 규모의 보성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 여수산단 민관 거버넌스, '섬진강환경청' 신설 건의

###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필요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련 행정기관·사회단체·전문가·주민 대표들이 여수산단 배출사업장을 지도 점검할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을 정부에 건의했다.

26일 여수국가산단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는 최근 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단 환경중장대책을 마련하기

로 했다.

거버넌스는 실무위원회 구성안과 거버넌스 권고안 협의, 여수산단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인력 충원 방안,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건의 등을 논의했다.

거버넌스 권고안 실행·산단 주변 환경실태조사 등 연구과제 관리를 수행할 실무위원회는 사회단체·주민 대표·전문가·행정기관 관계자 등 15명이 참여한다.

또 위반업체 환경개선대책 추진 및 배출사업장 현장 공개 등 합의사항을 담은 권고안 초안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회 의견을 수렴해 수정·보완 후 확정하기로 했다.

특히 여수산단 배출사업장 점검인력 확충 방안과 지역 환경관리 강화를 위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을 거버넌스 권고안에 반영해 거버넌스 명의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다음 제18차 회의는 다음달 13일 열리며 실태조사 등 연구과제 준비사항, 실무위원회 운영 규정, 권고안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



